

현대 한국어의 ‘-어 가지고’에 대하여

나카니시 교코*

1. 들어가기

1.1. 연구의 목적

이 글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의 동사 ‘가지다’가 ‘-어 가지고(가지구)’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본동사 ‘가지다’의 단순한 활용형과는 다른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상세를 밝히는 데 있다.

1.2. 연구의 대상

‘-어 갖고(갖구)’에 관해서는 ‘-어 가지고(가지구)’와 어감상 약간의 차이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여기서는 일단 같은 것으로 다루기로 한다.

‘-어 가지고’에 보조사나 어미가 붙은 ‘-어 가지고서’나 ‘-어 가지고도’와 같은 용례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용례들은 ‘-어 가지고’의 의미적 기능을 알기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3. 연구의 방법

먼저 사전을 포함한 선행 연구를 개관하고 본동사의 활용형이 아닌 ‘가지

* 박사과정

고'가 종래 어떻게 파악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선행 연구의 지적을 기초 자료에 비추어 검증함으로써 '-어 가지고'의 통사적 특징을 밝히고, 이어서 '-어서'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어 가지고'의 의미적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기초 자료로 이용한 용례들은 모두 1980년 이후 한국에서 출판·방송된 소설, 희곡, 시나리오, TV 프로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2. 선행 연구

2.1. 사전

<표1> '-어 가지고'에 관한 사전의 기술 내용 (발행년도 순)

사전명	품사	의미·유의어	항목
李熙昇(1961:1994)	보조동사	어미 '-아'나 '-어' 아래에 붙어, 그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별도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2)	토	'-아서(-어서, -여서)'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포함
天理大學朝鮮學科研究室(1967)	조동사	'-아, -어, -여' 아래에 붙어서 동작 혹은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을 나타냄.	별도
동아출판사사서부(1970)	조동사	'-아, -어, -여' 아래에 쓰이어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별도
李崇寧 외(1976:1983)	조동사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 '-아서/-어서'	별도
安田吉實·孫洛範(1983)	조동사	동작 혹은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을 나타냄.	별도
大阪外國語大學朝鮮語研究室 편(1986)	조동사	동작·상태의 지속. 생략되어도 의미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서/-어서/-여서'	별도
菅野裕臣 외 편(1988)	동사	'-서'와 거의 똑같다.	포함

이기문(1989:1990)	조동사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뜻함.	별도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1992)	동사	동사, 형용사의 '-아(어, 여)형 아래에서 '-아서(어서, 여서)' 또는 '-고'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포함
한글학회(1992:1997)	보조동사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나타냄. '-아서(-어서)'와 비슷하다.	보라
油谷幸利 외 편(1993)	동사	~해서. '-아서'의 유의어.	포함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어떤 행위를 끝내거나 상태를 유지하여.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또는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행위의 결과나 특정한 상태에 처해 있어서.	포함 (작은항목)

*'별도'는 '가지다'와 별도로 '가지고'(혹은 '가지다2') 항목이 있는 경우. '포함'은 그것이 없는 경우. '보라'는 '보라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2.2. 논저

'-어 가지고' 자체를 주제로 한 논저로서는 洪允杓(1984:335-350) 외 몇 편이 있을 뿐이다. 洪允杓(1984)에서는 최현배(1929:1971:406), 李熙昇(1961), 金倉燮(1981:33-34, 90)을 검증한 후 '-어 가지고'를 '후치사'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래서 먼저 최현배(1929:1971), 金倉燮(1981)을 개관한 후 洪允杓(1984)가 제시하는 '-어 가지고'의 통사적 특징을 차례차례 검증해 나가기로 한다. (李熙昇(1961)은 <표1> 참조)

2.2.1. 최현배(1929:1971)

최현배(1929:1971)에서는 동사를 다루는 장에서 '보조동사'란 항을 두고, 그 한 갈래로서 '보유보조동사(保有補助動詞)'를 들었다. 보유보조동사란 '풀이말의 실제적 결과를 지님(保有)을 나타내는 도움움직임'이어서, 구체적

으로는 ‘놓다, 두다, 가지다(가지고), 닦다(닦아)’가 있다. 또 그 용법으로서는 ‘으뜸 움직임의 어찌꼴의 첫째 어찌꼴(-아, -어)’ 뒤에 쓰여진다고 했다.

2.2.2. 金倉燮(1981)

金倉燮(1981)은 복합 동사의 판별 기준과 단어 형성의 규칙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 가지고’의 ‘가지고’를 ‘소위 보조동사 구문 중에서 ... 특이한 존재’라고 했다. ‘특이하다’는 것은 ‘가지고’가 ① 어미로서 ‘-고’만을 취한다(다른 활용형을 가지지 않는다; 필자 주석), ② ‘선행동사’에는 아무 제약도 없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조동사들 중에서 ‘-어 가지고’만이 ‘선행동사와 함께 하나의 동사가 되나 ‘가지고’가 이미 어휘적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지고’는 ‘완전히 문법적 의미와 기능만을 가지는 어미의 한 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2.2.3. 洪允杓(1984)

洪允杓(1984)은 우선 본동사 ‘가지다’의 활용형인 ‘가지고’와 용례 비교를 통하여 그것과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 ‘-어 가지고’¹⁾가 존재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어 가지고’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함으로써 그것이 보조동사나 복합 동사(의 후행 동사)임을 부정했다.

- ① 선행 용언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음.
- ② ‘가지고’ 이외의 다른 활용형을 허용하지 않음.
- ③ ‘-어 가지고’의 구성을 취하는 문장은 항상 두 개의 문장이 접속되어 이루어짐.
- ④ 두 문장의 주어 또는 행위자가 항상 동일하고 서술구는 항상 달라야 함.
- ⑤ 선행 용언에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를 연결시킬 수 있음.
- ⑥ 선행 용언에 시제 표지의 선어말어미를 연결시킬 수 없음.²⁾

1) 洪允杓(1984)에서 ‘Vs+어 가지고’로 되어 있는 것도 이 글에서는 모두 ‘-어 가지고’로 표기한다.

2) 이것은 보조 동사나 복합 동사의 특징이기도 한다. 따라서 ‘-어 가지고’가 보조 동

⑦ 어근분리현상이 가능함.³⁾

⑧ 부정소 '안'은 '-어'와 결합하는 용언 앞에만 올 수 있음.⁴⁾

'-어 가지고'의 '가지고'를 어미의 하나로 보는 金倉燮(1981)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다.

곧 '명사+을/를 가지고'의 '가지고'에는 생략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대격이 되는 명사에 아무 형태론적, 의미론적 제약도 없는 것으로 인해 '명사+을/를 가지고'의 '가지고' 중 어떤 것은 어미의 하나이다, 그래서 '-어 가지고'도 어미 구조체로서 다룰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가지고'는 서술어의 실제적 결과를 보유하거나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가지다'의 어휘 의미와 일치한다, 따라서 어휘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 및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가지고'는 '후치사'라는 문법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金倉燮(1981)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어 가지고'의 '가지고'이다. '명사+을/를 가지고'의 '가지고'가 가령 어미라 하더라도 '-어 가지고'의 '가지고'까지 어미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 전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명사+을/를 가지고'의 '가지고'가 본동사 '가지고'의 어휘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 가지고'의 '가지고'도 그렇고, 따라서 그것은 '후치사'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3. 기초 자료의 분석

수집된 용례 수는 350개이다. 이 중 회곡의 설명 부분도 포함해 쓰여진

사 혹은 복합 동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3) ⑤, ⑥, ⑧도 결국은 이 ⑦의 문제이다. 다만 洪允杓(1984:341)도 지적하듯이 '-어'와 '가지고' 사이에 개입될 수 있는 문법 요소와 그렇지 못하는 문법 요소가 있고, '-시'는 전자에, 시제 표지의 선어말어미나 '안'은 후자에 속한다.

4) '안'이 '-어'와 결합하는 용언 앞에만 온다는 것은 보조 동사나 복합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가지고' 뒤에 '않다'가 오지 못하는 것은 ②의 당연한 귀결이다.

문장에서 수집된 것은 92개(26%)이었다. 소설에서 수집된 것에 한정하면 80개의 용례 중 회화문 이외의 용례가 52개(65%)이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종래 ‘-어 가지고’는 모어화자들로부터 ‘정식 표현이 아니다’, “-어서”의 회화체에 불가하다’는 대접을 받아왔다. 菅野裕臣(1988)에서도 ‘회화체에서 쓰인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어 가지고’가 회화 이외에서도 적잖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어서’의 회화체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洪允杓(1984)에서 지적된 ①~⑧을 검증한다는 방법으로 기초 자료를 분석해 나가기로 하는데, ②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 사용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겠다.

- ‘가지고’에 앞서는 용언을 ‘선행 용언’, 그 뒤에 오는 용언을 ‘후행 용언’이라 함.
- ‘가지고’에 의하여 두 문장이 연결되는 경우 앞 문장을 ‘문장1’, 뒤 문장을 ‘문장2’라 함.
- 문장1이 나타내는 내용을 ‘전건’, 문장2가 나타내는 내용을 ‘후건’이라 함.

3.1. 선행 용언의 분류

3.1.1. 품사별 분류

‘① 선행 용언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 용언을 먼저 품사별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표2> ‘-어 가지고’ 선행 용언의 품사 분류

동 사		형용사	존재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합계)
자동사	타동사					
89	221	21	10	8	1	350

여기서 지정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金倉燮(1981)과 洪允杓(1984)가 들고 있는 '나는 바보여 가지고'나 '그 사람은 바보여 가지고'와 같은 쓰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나타나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 용언 전체에서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고(89%), 특히 타동사의 출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동사 전체의 71%)이 눈에 띈다.

한편 '-어서'에서 선행 용언으로 나타나는 동사는 87.8%가 자동사라는 보고가 있다.⁵⁾ '-어서'와 '-어 가지고'는 선행 용언의 대부분이 자동사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비율이 완전히 역전하고 있는 것이다.

3.1.2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

선행 용언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은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였다. 3개 이상 출현한 단어만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다'에는 '이렇게 하다', '드라마타이즈 하다' 등이 있고 이른바 '하다 동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되다'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다', '인연이 되다' 등이 있고 '하다 동사'의 피동으로서의 '되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3> '-어 가지고' 선행 용언으로 빈도가 높은 단어들

사다	28	이렇다	6	말다	4	배우다	3
그러다	18	있다	5	싸다	4	벌다	3
하다	15	가다	4	없다	4	보다	3
되다	13	나다	4	만들다	3	생기다	3
받다	6	나오다	4	모으다	3	찾다	3
오다	6	넣다	4	못하다	3	(합계)	149

5) 鄭玄淑(1998:247)에서 제시된 이 수치는 "해서(-어서)에서 빈도가 높고 '하고(-고)'에서 빈도가 낮은(선행) 용언'에 관한 자동사·타동사 비율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로 '-어서' 선행 용언의 자동사·타동사 비율이라 할 수는 없으나 경향으로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서 인용했다.

여기서 ‘값을 치르고 제 것으로 만든다’(“우리말 큰 사전”)는 극히 구체적 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면서도 ‘하다’나 ‘되다’ 이상의 출현율을 나타내 는 동사 ‘사다’에 관해서 그 선행 용언으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지다’가 원래 ‘보유한다’는 뜻인 만큼 특히 뒤에 이동 동사가 오는 경 우, ‘사 가지고’는 <사다→가지다(보유하다)→가다/오다>라는 본동사의 연 속에 불가하다는 반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다음과 같은 용례는 이번 의 기초 자료에서 제외했다.

(1) 잔돌 엄마가 뭔가 잔뜩 싸 가지고 온다. [은마:493]

이 용례에서 ‘가지고’는 ‘손에 든다’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고, ‘싸-’에 비 해 그 의미적 중요성이 높다(곧 본동사이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서는 무엇인가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싸-’라는 동작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⁶⁾

한편 ‘사 가지고’의 경우 다음 용례에 보다시피, 산다는 행위의 결과 ‘보 유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에 대해 화자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⁷⁾

(2) 좀 멋을 낸다는 멋쟁이 친구들은 남대문 시장을 뒤져서 미제 청바지를 사 가지고 역시 그것을 수선소에 가서 몸에 맞게 고쳐 입었다. [現文4:213]

화자의 관심이 ‘사는 것’과 ‘가는 것’ 만큼 ‘가지고 있는 것’에 향하고 있 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표현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2') ...청바지를 사서 역시 그것을 가지고 수선소에 가서 몸에 맞게 고쳐 입

6) 丙山政春(1997)에서는 ‘-어들다’를 합성 용언(복합 용언)이라 했다. ‘들다’와 ‘가지다’ 의 의미적 유사성에 주목한다면 이러한 ‘싸 가지고’의 ‘가지고’도 본동사가 아닐 수도 있다.

7) 다음과 같은 용례는 화자가 ‘-어 가지고’의 ‘가지고’를 ‘지니다’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이는 좋은 예다. ‘제가 챙겨가지고 갖고 내려올게요.’ [LA]

었다.

(2'') ...청바지를 사서 역시 그것을 수선소에 가지고 가서 몸에 맞게 고쳐 입었다.

3.1.3. 선행 용언(동사)의 의미적 분류

‘-어 가지고’의 선행 용언 중 동사만 310개를 의미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적어가 명시되어 있는 타동사에 관해서는 ‘:’ 뒤에 그 목적어를 표시했다.

<표4> ‘-어 가지고’ 선행 용언(동사)의 의미적 분류

의미적 분류	용례	용례수
처리(處理)동사	하다:달걀 부침, 놓다:도시락, 만들다:시계 ...	95
수득(收得)동사	사다:인형, 벌다:돈, 받다:영향, 찾다:돈, 집다:돈 ...	74
변용(變容)동사	되다, 생기다, 깨지다, 죽다 ...	45
정신(情神)동사	배우다:미용술, 알다:번지, 좋아하다:빵, 들뜨다 ...	25
왕래(往來)동사	오다, 가다, 나오다 ...	20
지시(指示)동사	이러다, 그러다	19
발화(發話)동사	얘기하다, 말씀드리다, (~라고) 하다 ...	6
기타	돌다, 협력하다, 숨다, 부르다:주인, 조르다:아버지 ...	26

이와 같이 ‘-어 가지고’는 ‘처리’, ‘수득’, ‘변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류와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3.2. 문장 접속 이외의 ‘-어 가지고’

③ ‘-어 가지고’의 구성을 취하는 문장은 항상 두 개의 문장이 접속되어 이루어짐을 검증한다. 이것에 대한 반증으로서는 문장2가 없는 경우(곧 ‘-어 가지고’가 문말에 나타나는 경우)와 ‘가지고’에 의하여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이 마치 복합 용언처럼 밀접하게 묶여 있는 경우, 그리고 ‘-어 가지고+

후행 용언(관형사형)'로 관형질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3.2.1. 문말에 나타나는 '-어 가지고'

'-어 가지고'는 문말에도 자주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문장2의 생략으로 볼 수도 있다. 사실 (3)과 같은 경우 뒤로 오는 문장이 문장2 노트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4)과 같은 경우는 문장1과 문장2가 도치됨에 따라 '-어 가지고'가 문말에 와 있음에 불과하다.

(3) 전축이 고장이 나가지구요. 고치러 보냈대요. [서울:213]

(4) 형님, 오늘도 전승축하식에 참가하셨지요, 정민을 모아가지고? [해방:92]

그러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문장2가 아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어 가지고'는 '~하다니 (한심하다, 뜻밖이다)'와 같은 뜻을 나타낸다.

(5)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에 약해 가지고..., 아이고! [겨울]

(6) 아니 이걸 왜 괜히 사달래 가지고. [LA]

(7) 넌 나보다두 더 늙어 가지구! [金熙昌2:125]

(8) 그래서 온 식구가 주눅이 들어 가지고 호호... [서울:146]

(5)~(8)의 '-어 가지고'를 '-어서'로 대치해 보자.

(5') ?젊은 사람이 이렇게 술에 약해서..., 아이고!

(6') ?아니 이걸 왜 괜히 사달라 해서.

(7') ?넌 나보다두 더 늙어서!

(8') ?그래서 온 식구가 주눅이 들어서 호호...

곧 (5)~(8)과 같은 문말의 '-어 가지고'는 '-어서'로서는 충분히 나타낼 수 없는 '부정적 판단 근거'라는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⁸⁾

8) 다만 이러한 기능은 반드시 문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세대학교(1998)는 '부정적인 의미로'라는 설명과 함께 '세상이 이래 가지고 어디 사람 살겠나'라는

3.2.2. ‘가지고’에 의한 준(準)복합 용언

‘가지고’에 의하여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이 결합되어 마치 복합 용언처럼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수집된 용례 중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어 가지고+이동 동사’ 구성을 갖고 있었다.

(9) 우리 장볼 때 동생네 것도 같이 봐가지고 가 파출부에게 요리 실습까지 해보였고… [現文4:23]

(9)에서 ‘봐가지고’와 ‘가’는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묶여 있고,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단어, 예를 들면 ‘우리(는)’나 ‘그리고’ 등은 삽입될 수 없다.

‘동생네 집으로’와 같이 얼핏보면 삽입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요소도 있기는 하나 그것을 삽입시킬 경우 장보는 행위와 동생네 집에 가는 행위 사이에 시간적 틈이 생겨서, 구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게 될 것이다.

(9') …[동생네 것도 같이 봐가지고] [동생네 집으로 가] [파출부에게 요리 실습까지 해보였고…]

따라서 (9)의 ‘봐가지고 가’는 복합 용언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같은 구성을 갖는 용례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0) 과일이나 술이나 고기를 사가지고 가려고 한 슈퍼마켓 앞으로 갔다가 몸을 돌렸다. [現文4:411]

(11) 그래서 카메라를 끌아 가지고 왔단다. [現文2:225]

3.2.3. 후행 용언의 내포화

‘-어 가지고’의 후행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⁹⁾가 붙어서, 전체로 관형

용례를 들고 있다.

9) 관형사형 어미 ‘-르’를 취하는 용례는 하나도 수집되지 않았다.

절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후행 용언은 역시 이동 동사인 경우가 많다.

(12) 내가 사가지고 간 그 과일 바구니의 상대는 최 교수가 아니었던가. [現文2:38]

(13) 옛날에 1292년도에 마르코폴로가 중국에 가 가지고 쓴 “동방견문록” 안에 이미 아이스에 대한, 하드에 관한 기록이 있고… [히트]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존재사가 후행 용언인 ‘-어 가지고 있는’ 구성이다.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어 가지고’가 단순히 ‘-어서’의 회화체가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 가지고 있는’ 구성의 선행 용언으로서는 <말다:직분, 돈, 서류봉투> 3예, <숨기다:함정, 권위주의> 2예, <갖추다:미(美)> 1예, <쓰다:유서> 1예가 있었다.

(14) 이 자리에서, 이 직분을 말아 가지고 있는 내게, 그런 바보같은 질문이 필요하오? [金熙昌2:22]

(14)에서 ‘말고 있는’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아 가지고 있는’ 구성이 선택되어 있는 것인가. 참고로 말하면 각각 다른 자료에서 수집된 ‘말아 가지고’ 4예 중 3예가 이러한 ‘말아 가지고 있는’ 혹은 ‘말아 가지고 있던’ 구성으로 나타나 있었다.

4. 주어 기타

‘④ 두 문장의 주어 또는 행위자가 항상 동일하고 서술구는 항상 달라야 함’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5)에서는 문장1과 문장2의 주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2에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서 주어는 []로 표시함)

(15) [그는] 그것을 책보 속에 넣어가지고 학교엘 갔다. [現文2:364]

그런데 (16)에서는 문장2에 주어가 나타나 있고, 문장1과 문장2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알게 된다. 또 (17)의 문장2와 (18)의 문장1에서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문맥상 전자의 주어는 비행기 조종자나 항공기 관계자이고, 후자의 주어는 '화자'인 것이 명백하다.

- (16) 내가 기억하는 걸 마누라는 기억 못하고, 마누라가 기억하는 걸 [나는]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싸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 [서울:224]
 (17) [랜딩기어] 이상이 있어 가지고 [Ø] 비상을 선언하고 공중에서 한 오십 팔분 정도 돌다가... [YTN]
 (18) 또 거기다가 [Ø]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가지고 정말 [이 마음]이 흐뭇해지고 큰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히트]

⑤ 선행 용언에 경어법 선어말어미 '-시'를 연결시킬 수 있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 확인된다.

- (19) 그 분들이 근데 일이 있다고 그러서 가지고요, 단과대 소속 중에서 뽑을려고 오셨다가 제가 그냥 (모델이) 됐죠. [히트]

⑥ 선행 용언에 시제 표지의 선어말어미를 연결시킬 수 없음'에 관해서는 '-있어 가지고'라는 용례가 하나도 수집되지 않았고, 이러한 구성을 가진 문장을 짓는 것도 보통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옳은 지적이라 할 수 있다.¹⁰⁾

⑦ 어근분리현상이 가능함'에 관해서는 이 논문이 예시하는 '는, 를, 들...'과 같은 문법 요소의 개입은 이번 기초 자료에서 찾아내지 못했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개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데다가 ⑤ 역시 어근 분리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⑧ 부정소 '안'은 '-어'와 결합하는 용언 앞에만 올 수 있음'에 관해서는

10) 다만 기초자료 이외로 '그때만 해도 저는 ~ 씨를 좋아했어 가지고...'와 같은 표현이 TV 토크 쇼에서 쓰여져 있었다. 아주 비정상적인 표현이고 방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나, '-있어 가지고'가 아예 불가능한 구성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흥미를 끈다.

(20)과 같은 용례가 존재하고, 한편으로 (20')과 같은 구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타당한 지적이다.

(20) 두 살밖에 더 안 먹어 가지고 뭘 아주 어른처럼... [회곡:138]

(20')*두 살밖에 더 먹어 안 가지고 뭘 아주 어른처럼...

5. 의미적 분류

다음으로 '-어 가지고'가 실현하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분류 항목은 權玄淑(1994:1-46)과 鄭玄淑(1998:242-266)을 참고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의미적 분류 기준>

- 1) 선행: 전건이 먼저 일어나서 그 결과가 남지 않고 후건이 일어남.
- 2) 양태: 전건이 먼저 일어나서 그 결과가 남는 상태에서 후건이 일어남.
- 3) 원인·이유: 전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 그 필연적 결과로서 후건이 일어남.
- 4) 수단·방법: 전건을 이용해서 후건이 일어남.
- 5) 병렬: 전건과 후건이 열거됨.
- 6) 양보: 후건이 전건이 암시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냄.

1) 선행

(21) 여기서 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기둥을 친 거란 말이에요.
[YTN]

(22) 우리가 피난가 가지고, 할수없이 밥장살 시작했을 때만 해두... [金熙昌 1:107]

2) 양태

(23) 하루는 술에 이렇게 취해 가지고 집으로 날 찾아왔어. [대표97:128]

(24) 김양이 얼굴이 하얗게 되가지고 와서 그러잖아 글썄. [現文3:353]

3) 원인·이유

(25) 조그만 게 지 엄마 달아 가지고 나쁜 것만 배워서... [겨울]

(26) 어머니가 귀신에 빠져 가지고, 맹목적으로 귀신을 받들고, 귀신의 굴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모양으로! [金熙昌2:114]

4) 수단·방법

(27) 네가 만나자고 해도 절대로 가려고 하질 않는데 내가 그럼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갈 것이냐? [現文2:358]

(28)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 가지고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히트]

5) 병렬

(29) 코미디 계에서도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구봉서, 또 배삼룡 선생님에서 부터 쪽 나오셔 가지고 박미선 씨까지 나오셨잖습니까. [히트]

(30) 그런데, 언젠가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개울에 얼음장이 녹아 내릴 때가 되면... [金熙昌1:76]

6) 양보

(31) 차량 같은 경우 파편에 맞아 가지고 미처 신고를 못했던 차량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도 피해 접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32) 너가 삼촌이 돼가지고 할 소리냐? [LA]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 가지고 있-' 구성 8개와 문말에 나타나는 '-어 가지고' 31개는 제외되어 있다.

<표5> '-어 가지고'와 후행 용언의 의미적 관계

선행	양태	원인·이유	수단·방법	병렬	양보	(합계)
88 (28%)	98 (32%)	49 (16%)	64 (21%)	3 (1%)	9 (3%)	311(101%)

‘-어서’에서는 ‘선행’(38.4%)과 ‘원인·이유’(37.8%)가 거의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양태’(14.1%), ‘조건’¹¹⁾(5.9%), ‘수단·방법’(3.7%)의 순서였다.¹²⁾ 그것에 대해 ‘-어 가지고’에서는 ‘양태’가 가장 많고, ‘선행’, ‘수단·방법’, ‘원인·이유’가 그것에 뒤따르고 있다.

‘양태’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가지고’를 ‘완전히 문법적 의미와 기능만을 가지는 어미의 한 가지’로 보는 金倉燮(1981)의 견해와는 달리, 그것이 여전히 ‘보유’의 뜻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수단·방법’이 ‘-어서’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사+을/를 가지고’가 ‘수단’의 뜻을 가지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원인·이유’에 관해서는 49개 중 14개가 ‘그래가지고’와 ‘이래가지고’의 용례이었는데 이것들을 이미 문법화된 접속사로 보고 제외한다면 ‘원인·이유’의 비율은 12%(35개)에 불과하다. ‘-어서’와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선행 용언과의 관계로 보면, ‘선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의 선행 용언은 모두 동사이어서 그 중 95%까지가 의지(意志) 동사이었다. 무의지(無意志) 동사는 ‘익다’, ‘생기다’뿐이었다.

그에 비해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에서는 의지 동사와 무의지 동사의 비율에 별 차이가 없었다. 무의지 동사에는 ‘(안개가) 끼다’와 같은 자연 현상, ‘(마음만) 들뜨다’와 같은 무의식적 정신 활동, ‘(무릎을) 깨지다’와 같은 본의가 아닌 사건 등이 포함된다.

6. 조사·용언 어미와의 결합

‘-어 가지고’에 보조사 ‘-는’과 ‘-도’, 그리고 용언 어미 ‘-서’ 등이 붙은

11) 權在淑(1994)에서는 ‘이제 와서’와 같이 시간적 조건을 나타내는 것과 ‘솔직히 말해서’와 같이 문장 부사어적인 것들을 ‘조건’이라 부르고 항목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어 가지고’의 기초 자료에는 이러한 항목에 해당되는 용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12) 權在淑(1994) 참조.

용례들도 몇 개나 수집되었다.

(33) 생김생김 눈빛만 보아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다. [現文2:236]

(34) 내숙이는 제 아이를 업고 또 한 아이를 배가지고도 씩씩하다. [현문 97:147]

(35)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삶아가지고서 한국 요리로 바꿀 참이라니까. [LA]

(36) 우리 공부는 자기의 전문 한 가지만 공부해 가지고서는 아무 것도 성사 시킬 수가 없어요. [金熙昌1:158]

(33)의 '가지고'는 '-서'와 바꿔 쓰는 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34)의 '배가지고도'는 '배서도'보다 '배고 있어서도' 혹은 '배고 있으면서도'가 되어야 온전한 문장이 될 것이다. '진행'의 의미가 나타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5), (36)은 '-어 가지고'가 단순한 '-어서'의 회화체가 아닌 것을 더욱 명백히 보이고 있다. '-어 가지고'가 '-어서'의 회화체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이 '-서'와 겹쳐서 쓰여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35)의 '삶아가지고서'는 '삶아서'와 바꿔 써도 별 의미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지고'는 '∅'로 해석된다.

(36)의 '공부해 가지고서'에 관해서는 (35)처럼 '가지고'를 '∅'로 보고 '공부해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다가'가 의미적으로 더 가깝다.

7. '-어 가지고'의 의미적 기능

이상 보아 온 것처럼 '-어 가지고'의 '가지고'가 모두 '-서'와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부분이 '-서'와 바꿔 쓸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서는 '-어 가지고'와 대체 가능한 주된 표현들을 정리해 둔다.

1) -어서

‘-어서’와 바꿔 쓸 수 있는 많은 용례 중 하나만 들면 다음과 같다.

(37) 내가 내 아저씨 얘기만 하면 괜히 성이 나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꽤 가지고 신경질만 부리지 뭐예요. [손님]

이 용례의 경우 ‘괜히 성이 나서’와 같이 ‘-서’가 바로 앞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 가지고’가 선택된 가능성도 있다.

2) -어(∅)

‘-어서’와 바꿔 쓸 수 없거나 ‘-어서’와 바꾸면 어색한 표현이 되어 버리는 용례들도 있다. (38)은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대치로 인하여 ‘-서’가 겹쳐 버리는 경우이고, (39)은 3.2.2.에서 살펴본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이동 동사) 사이에 긴밀한 시간적 접근성이 있는 경우이다. 후자는 ‘-어서’와 ‘-어(∅)’의 분포상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8) 어—그래서 저희 부모도 모르게 숨어 가지고서는 다신 나타나지도 못하는구먼? [金熙昌2:187]

(38') ...저희 부모도 모르게 숨어(∅)서는 다신 나타나지도 못하는구먼?

(39) 갈려거든 돈이나 찾아가지고 가자. [해방1:30]

(39') 갈려거든 돈이나 찾아(∅) 가자.

3) -고

‘-고’와의 대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1992)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표1>참조), 이번의 기초 자료에도 ‘-고’와 바꿔 쓸 수 있는 ‘가지고’의 용례들이 몇 개가 나타났다.

먼저 (29), (30)과 같은 병렬의 뜻을 나타내는 용례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어 가지고 있-’ 구형에서 선행 용언이 ‘-고 있다’ 형으로 상태[용례(40)] 혹은 진행·습관[용례(41)]을 나타내는 동사류인 경우, 이 ‘가지고’ 또한 ‘-고’와 바꿔 쓸 수가 있다.

- (40) 그럼에도 그 사진은 모르는 곳에 깊은 함정을 숨겨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現文 1:324]
- (40') ...깊은 함정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41) 고독과 보람을 그는 전기를 매개로 한 역사적 대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 가지고 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무덤]
- (41') 고독과 보람을 ... 대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 있던 것일지도 모른다.

4) -면서도¹³⁾

- (42) 이놈 정신 멀쩡해 갖고 미친 척을 해. [대표:333]
- (42') 이놈 정신 멀쩡하면서도 미친 척을 해.
- (43) 그런 데 나가면 공연히 구설이나 듣지, 실속도 없어가지고 떤돈이나 번 것 같잖아. [現文2:171]
- (43') ...실속도 없으면서도 떤돈이나 번 것 같잖아.

8. 마무리

<'-어 가지고'의 통사적 특징>

- 선행 용언의 89%가 동사이고, 그 중 타동사가 71%를 차지함.
- 선행 용언으로는 '처리 동사', '수득 동사'(특히 '사다'), '변용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문장 두 개를 접속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음.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이 준복합 용언을 이루는 경우도 있음.
- 문장1과 문장2의 주어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항상 그렇지는 않음.
- 보조사나 용언 어미와 결합할 수 있음.

13) 성낙수(1999:594)는 '양보'를 나타내는 대치 표현으로 '-어도'를 들었는데 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얼굴은 예뻐도(←예뻐 가지고) 그것도 모르니?'라는 예문도 포함하여 '-면서도'로 대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어 가지고’의 의미적 특징>

- ‘양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선행’, ‘수단·방법’, ‘원인·이유’가 뒤따르고 있음.
- 문장2가 뒤따르지 않는 문장1의 문말에 나타났을 때에는 ‘부정적 판단 근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
- ‘-어서’뿐만 아니라 ‘-어(∅)’, ‘-고’, ‘-면서도’ 등과의 대치도 가능함.

이번의 조사에서는 ‘-어 가지고’가 ‘-어서’의 단순한 회화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어 가지고’는 ‘-어(∅)’, ‘-고’, ‘-면서도’ 등, ‘-어서’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의미 해석에는 개인차가 생기기 쉬운 면도 없지 않은데다 이번에 이용할 수 있었던 용례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와의 대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용례를 사용한 더 체계적인 설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 ‘말아 가지고 있-’나 ‘(아이를) 배가지고도’와 같은 용례가 수집된 것으로 ‘-어 가지고’가 ‘-어 있다’나 ‘-고 있다’와 같은 상적 기능까지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문제도 부상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2), 『조선말 사전』, 과학원출판사.
- 김정민(1995), 「'가지고/갖고'의 문법형태소화」, 제22회 국어학 공동연구회 발표
요지.
- 金倉燮(1981), 「現代國語의 複合動詞 研究」, 『國語研究』 47, 국어연구회.
- 野間秀樹(1993), 「現代韓國語의 接續形 <-다가>에 對하여—aspect·taxis. 用
言分類」, 『朝鮮學報』 第149輯, 朝鮮學會.
- 동아출판사사서부(1970), 『동아 새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
-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성낙수(1999), 「경상도 방언에서의 [-어 가지고]의 집미사화 연구」, 『南川 朴甲
洙教授 停年退任 紀念論文集』, 月印.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
- 이기문(1989:1990), 『새 國語辭典』, 동아출판사.
- 李崇寧 외(1976:1983), 『대국어사전』, 玄文社.
- 이은정 편(1994), 『국어학·언어학·용어사전』, 국어문화사.
- 李翊燮·任洪彬(1983:1984), 『國語文法論』, 學研社.
- 李熙昇(1961:1994),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 임규홍(1994), 「'어가지고'에 대하여」, 『배달말』 19.
- 최현배(1929: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글학회(1992:1997),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 洪允杓(1984), 「現代國語의 後置詞 {가지고}」, 『東洋學』 14輯, 檀國大學校 東
洋學研究所.
- 內山政春(1997), 「現代朝鮮語における合成用言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65
輯, 朝鮮學會.
- 大阪外國語大學朝鮮語研究室 편(1986), 『朝鮮語大辭典』, 角川書店.
- 菅野裕臣 외 편(1988), 『コスモス朝和辭典』, 白水社.
- 權在淑(1994), 「現代朝鮮語의 接續形Ⅲ-서について」, 『朝鮮學報』 第152輯, 朝鮮
學會.
- 鄭玄淑(1998), 「現代朝鮮語의 接續形Ⅰ-고とⅢ-서について」, 『朝鮮語研究會』 149·
150回發表要旨.
- 天理大學朝鮮學科研究室(1967), 『現代朝鮮語辭典』(改訂), 天理時報社.
- 安田吉實·孫洛範(1983), 『民衆エッセンス韓日辭典』, 民衆書林.
- 油谷幸利·門脇誠一·松尾勇·高島淑郎 편(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용례를 수집한 기초자료> []는 약호

- 現代文學賞受賞小説集 1(1990), 現代文學. [현문1]
現代文學賞受賞小説集 2(1991), 現代文學. [현문2]
現代文學賞受賞小説集 3(1992), 現代文學. [현문3]
現代文學賞受賞小説集 4(1993), 現代文學. [현문4]
현대문학상수상소설집 '94(1994), 現代文學. [現文94]
현대문학상수상소설집 '95(1995), 現代文學. [現文95]
현대문학상수상소설집 '96(1996), 現代文學. [現文96]
현대문학상수상소설집 '97(1997), 現代文學. [現文97]
金熙昌作品集 1(1986), 평민사. [金熙昌1]
金熙昌作品集 2(1986), 평민사. [金熙昌2]
韓國시나리오選集 第3卷(1990),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映畫振興公社. [손님]
韓國시나리오選集 第9卷(1993), 은마는 오지 않는다, 映畫振興公社. [은마]
한국의 현대회극 III(1986:1989), 열음사. [회극]
해방공간 대표회극 1(1989), 예문. [해방]
70·80년대 공연금지회극선집(1990), 황토. [금지]
서울24시 하늘아 하늘아(1989), 第三企劃. [서울]
박·제·인·간 '91회극(1991), 원방각. [박제]
한국 대표 회극선(1997), 한국연극협회. [대표]
회극문학상 수상작가선(1997), 문학사상사. [문학상]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1(1998), 朝鮮日報社. [무덤]
KNTV 히트예감 광고시대(1998.5,6,9) [히트]
KNTV PD수첩(1998.5) [PD]
KNTV YTN뉴스(1998.9) [YTN]
KNTV LA이리랑(1998.9,10) [LA]
KNTV 맛따라 길따라(1998.10) [맛]